

# “순천 ‘동남사’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박혜정 시의원, 도시재생 연계 관광상품화 주장  
우리나라 최초 사진기 제조공장 보존 부실 지적

최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기 제작사인 '동남사진기공업사' (이하 동남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 상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열린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혜정 의원은 군산에 있는 초원사진관의 사례를 제시하며, 순천시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에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8년 군산 초원사진관을

찾은 관광객은 외국인 5,005명을 포함한 43만8,592명으로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기 제조사인 동남사를 체험형 등으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순천시에 물었다.

동남사는 1952년 김철우 사장이 순천을 대수정 101번지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카메라 제조공장이다. 지금의 순천시 연자로 랜드로바 자리이며, 1976년 화재로 문을 닫을 때까지 카메라의 국산화와

기술혁신을 이끌었던 우리나라 사진공업의 역사적 장소이다.

현재 이곳에는 2019년 순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만들어진 '동남사진문화공간' 이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다. 동남 사진문화공간에는 벽면에 동남사의 역사에 대한 사진자료가 전시돼 있으며, 한편에는 동남사의 사진기와 확대기를 비롯한 부품들이 전시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습기가 많아 목재와 금속으로 제작된 카메라를 비롯한 부품을 보관하기에는 부적합해 일부는 순천대 박물관에 보관하고, 일부는 고 김철우 사장의 아들인 김중식 씨가 운영하는 랜드로바 매장과 창고에 보관돼 있다.

동남사진문화공간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진을 배우는 학생이나 동호인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그렇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다시피 하는 동남사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대 사진학과 한 교수는 “사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천 하면 동남사가 먼저 떠오른다. 동남사는 사진업계에서는 대단한 콘텐츠인데 아직까지 순천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동남사의 가치를 재조명해 콘텐츠화하면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의원은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국가정원을 방문한 후 순천의 구도심 권에서 보고 즐길만한 곳이 없다”며 “도



동남사 고 김철우 사장의 아들 김중식 씨가 매장 한켠에 보관 중인 동남사 사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동남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동남사에서 제작한 사진기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보다 나은 보존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며 “건설 중인 순천부유성안의 전시실에서 전시하는 방안과 드라마세트장을 이용한 홍보방안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구례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구례단감을 고르고 있다. /구례군 제공

## 구례군, 서울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꾸러미 취약계층에게 전달

구례군이 최근 구례농협과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구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구례지역 수해현장에서 '사랑의 밥차'로 나눔 봉사를 펼친 사랑의 교회와 맺은 인연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변에서 자라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과 맛이 뛰어난 구례 단감과 친환경으로 재배한 썬버쟁이 나물세트가 판매됐다.

구례군과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구례군과 구례농협은 사랑의 교회를 통해 단감과 쌀로 구성된 꾸러미를 서울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직거래행사 추진으로 농가들의 유통 활성화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곡성 백세미 수제 누룽지  
아마존 입점 온라인 판매

곡성군 대표 쌀 백세미로 제작한 가마솥 수제 누룽지가 세계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 아마존에 진출했다.

곡성군은 최근 아마존을 통해 판매될 백세미 가마솥 수제 누룽지가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장성비축기지에서 선적됐다고 밝혔다. 해당 백세미 누룽지는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을 통해 세계의 소비자들과 만난다.

백세미는 곡성군의 특화미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중 하나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여수 내년 3월 공공배달앱 출시한다

(주)나플래닛·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여수시가 지난 20일 (주)나플래닛,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및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문배달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조양현 (주)나플래닛 대표이사, 박기창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해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을 맺었다.

먼저 여수시는 공공배달앱 이용활성화

를 위해 여수사랑상품권으로 6~10% 할인된 가격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창구를 통해 시민 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주)나플래닛은 공공배달앱의 개발과 운영, 가맹점 모집을 맡아 소상공인들에게 주문금액 2% 이하의 저렴한 중개수수료의 0.1%를 모객을 위한 프로모션에 사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배달앱 이용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

이 민간배달앱에 비해 주문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가맹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여수형 공공배달앱은 오는 12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가맹점 모집과 시민 홍보 등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가맹점 확보와 시민들의 이용이 필수 요건이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주문수수료 부담이 적고 사용자에게는 여수상품권 할인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어 좋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모든 시민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광양시, 구강보건사업 복지부장관상

광양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구강보건사업 시행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보건소는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의 구강 건강 증진향상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특히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운영하며 농촌지역 11개 초등학교에 구

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 구강관리에 힘써 의료형평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보건소는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공연을 통해 어린이의 구강 건강습관을 길러주고 중요성을 인식시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구강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기 위

한 참여형 어린이 보건교육장을 운영했으며, 28개 초등학교 어린이 불소도포와 불소용액 양치사업, 생애주기별 주민참여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광양시 백형승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바른 구강 관리와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순천 낙안 이곡마을, 사랑의 마스크 기부

순천시 낙안면 이곡마을 주민들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마스크 기부운동'에 동참하며 KF-94 마스크 1,450장을 기부했다.

이 마스크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주요관광지,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곡마을 안정현 이장은 “최근 모든 일상생활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낙안면 이곡마을은 109세대 222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낙안배와 맥주보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도 여름 이불 등이 담긴 권본상자 60개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보성 미력면 여성자원봉사회, 김장 나눔 행사

보성군 미력면 여성자원봉사회가 최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는 미력면 여성자원봉사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홀몸노인과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50가구에 김장김치를 담가 직접 전달했다.

백형승 회장은 “정성으로 만든 김치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상당액을 후원해 준 보성강 수력발전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력면여성자원봉사회는 매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밀반찬과 김치 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 여수 돌문어상회, 라면 1천만원 상당 후원

여수 돌문어상회가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라면 770상자를 여수시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을 거쳐 저소득 가정 400세대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전달됐다.

돌문어상회 황선호 대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 가정에 보탬을 드리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내년, 내후년도에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겠으며, 가게 주변은 물론 인근 방역에 앞장서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